

## 향기로은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이필레, 공희라, 김기택(배숙자), 김병율(이영숙), 김순석(임영덕), 김정배(임승주), 김종진(한안나), 김준화, 김현구(서재희), 박군자, 박순웅(이승혜), 방석대(차옥자), 방원식(이난수), 백경자, 백성원(안지영), 윤병호(양영옥), 이선미, 이소은, 이한철(박희영), 이희재, 정옥순, 채희춘(황영옥), 최기훈(정계숙), 최정란, 황근국(이경주), 무명1.(총27명)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이필레, 강은미, 김성옥, 김순석(임영덕), 김원재, 김준구(이소은), 김춘화, 김태수, 김형국(이오순), 박금엽, 박복례, 박순웅, 방원식(이난수), 이춘취, 이한철(박희영), 정경순, 정양학(박은숙), 정옥순, 최기훈(정계숙), 최정란, 베드로반전교회, 무명2.(총24명)

♠ **감사헌금**

이필레, 김미경, 김병율(이영숙), 김수자, 김재인(이강우), 김정배(임승주), 김현구(서재희), 김형국(이오순), 맹관순, 박노근(최미영), 박부웅(최귀남), 박춘자, 박현섭(권희정), 방석대(차옥자), 백경자, 선양애, 유호근(손명화), 이미영, 이선미, 이인숙, 이춘취, 이효숙, 이효숙, 이효숙, 장동민(박혜진), 장성자,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정영심, 정은전, 채명엽, 하세현, 고영자.(총33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문수경,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임현희, 정옥순, 주성탁, 최봉순, 홍은민, 홍준민, 김민혁, 무명1.(총41명)

♠ **월정헌금**

김태수, 최순재.(총2명)

###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13주 : 고난주간 말씀 묵상			
<b>주 일</b>	열왕기상 2장 36 - 46절		
<b>월요일</b>	고린도전서 1장 18 - 25절	<b>목요일</b>	마태복음 26장 36 - 46절
<b>화요일</b>	로마서 5장 6 - 11절	<b>금요일</b>	누가복음 23장 33 - 46절
<b>수요일</b>	히브리서 9장 11 - 22절	<b>토요일</b>	베드로전서 4장 1 - 8절

시 무 장 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대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 퇴 장 로	오만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 역 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종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승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렬 루 아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 덴 : 최원지 엔 켈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고광훈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이집트: 김진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A X 국: 김혜월 A X 국: 박동권 김영화 A X 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대 국: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김흥기 A M A : 조동진	
협 력 교 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 력 단 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회(G.M.S.), 서울남도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도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3. 22 주일 예배 설교

####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0-13절

설교: 이진우 목사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나?”라고 묻고 있습니다(요 18:37~38). 성도는 그 삶과 마음에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주는 진리요, 세상을 이기는 진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참된 진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1.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1) 로마서 3장 1~2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법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2) 참된 성도는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참된 성도로 살아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3) 참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로 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씨,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고 더욱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를 증거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1)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의 죄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서야 합니다.

2)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그의 13권의 서신중에 무려 2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비”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 천국의 신비의 세계에 관한 바로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3)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요 그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즉 죽어야 사는 신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참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기는 자가 높임을 받으며, 낮아져야 높아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는 놀랍고 신비한 진리입니다. 왕이시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복종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성도는 간직하며 기억하며 세상으로 증거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예수의 비밀을 간직하며 증거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니까?

1)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론 10절에서 바울은 오직 자신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되 이 자랑이 어디에서나 막힘없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자랑함에 어떤 비방이나 오해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껏 해온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 12~13절에서 “나는 내가 해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니라.”했습니다.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들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 함에 힘쓰겠다는 사도의 결심입니다.

3) 오늘날 성도는 거짓된 무리와 그들의 이론을 밝혀 온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경계하며 오직 참된 진리를 증거함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진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도, 참된 성령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이제 우리에게로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세상의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케 하며 견고히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5

No. 41 - 13

2015. 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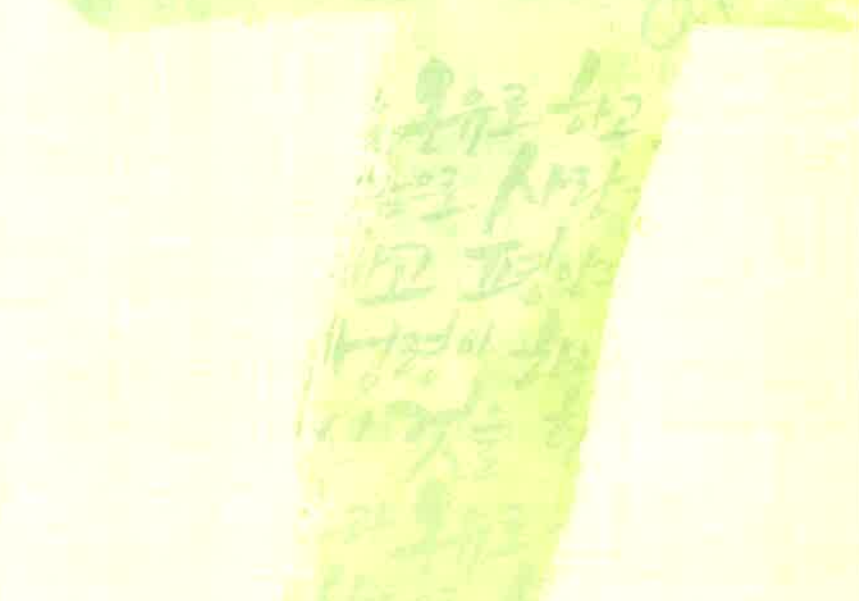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div> <div>동산의 샘</div> <div>A garden fountain</div> </div>	<div> <div>생수의 우물</div> <div>A well of living</div> </div>	<div> <div>흐르는 시내</div> <div>Flowing streams</div> <div>(아가 4:15)</div> </div>
<div> <div>담 임 목 사</div> <div>Senior Pastor</div> </div>	<div> <div>이 진 우</div> <div>Yee, Jln Woo</div> </div>	
<div> <div>●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div> <div>●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div> <div>●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div> <div>● 팩 스: 2689-1230</div> <div>● 홈 페 이 지: <a href="http://www.sunghyeon.or.kr">www.sunghyeon.or.kr</a></div> </div>		

